

革命完成된 中國을 向하면서

李灌鎔

△武昌에서 起義한지 於焉 十七載에 中國의 革命運動도 이제는 한 段落을 맺게 되었습니다. 五色旗의 中國은 白日旗의 中國으로 새로운 面目을 들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重量한 中國革命의 波瀾은 最近 數世紀間의 世界史的 縮圖를 보는 것 가트며 그 우에서 角逐하는 列强勢力의 消長은 今後의 歷史를 決定하는 契機가 감추어 있습니다. 世界 資本主義의 連環이 이곳을 싸고몰며 이곳에서 끈히지라고 합니다.

英,米 强國의 資本主義的 利益은 끈임 업시 中國에서 衝突되는 同時에 露國의 反 資本主義的 勢力도 中國으로 浸透하여 갑니다.

△中國革命은 二重의 意味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資本家的 民主主義의 獲得이요, 또 하나는 列强帝國主義로부터의 國民的 解放입니다. 그리하여 帝國主義의 列强과 및 그 압압이가 되는 國內의 軍閥官僚에 對한 鬪爭의 形式을 取하게 됩니다. 그러면 鬪爭의 指導勢力은 누구냐 하는 問題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마는 中國은 本來 資本家階級の 發達이 幼稚하여 그 勢力이 極히 微弱함으로 이에 比하여 보다 더 □□하고 보다 더 組織된 勞働者와 農民이 그 指導勢力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興中會 以來 一貫한 革命의 體驗으로부터 中國의 『레닌』인 故 孫文氏의 抽出한 民族, 民權, 民生의 三民主義 理論이며 □□, □共, 農工의 三大政策은 實로 中國革命의 特質과 方向을 가리치는 것입니다.

△廣東에서 蘊蓄한 國民 革命軍의 勢力이 一九二六年 七月 北伐의 壯舉를 일으키게 된 原動力은 저 孫中山의 三大政策 알에 全國民의 百分의 八十以上을 차지하고 있는 農工階級을 動員함에 잇섯든 것이요, 南京進出以來 北伐의 一時 挫折은 革命의 發展過程에 免치 못하는 階級勢力의 分化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中國革命은 나아갈 길은 나아가고야 말게 되었습니다. 今年 봄 第四次 全體會議가 쫓나자 國民黨의 北伐事業은 再燃의 機運이

濃熟하게 되었스니 蔣, 馮, □ 三 巨頭의 結合이며 武漢, 廣東의 參加는 國民革命軍으로 하여금 기우러지는 北方軍閥에 對하여 決定的 勝利를 얻게 하여 六月初旬 京津이 陷落되자 北伐事業은 이로써 罅를 막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決코 中國革命의 完了를 意味함은 아닙니다. 이번의 北伐成功은 表面으로보면 中國 資本閥의 勝利로 몰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中國革命의 過渡期的 特質을 分析해보지 아니하면 理解하기 어렵습니다. 안으로는 舊 軍閥의 세력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밖으로는 列強帝國主義의 武力의 干涉이 崢嶸 새가 엮는 中國으로서는 一時 資本閥의 革命勢力이 表面에 나서서 故 孫文氏의 三大政策을 拋棄하면 帝國主義勢力과 妥協까지 하면서라도 國內의 舊 軍閥을 打倒하여 統一政府를 樹立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中國革命이 資本家的 民主主義의 階段을 通過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가리키는 것이니 帝國主義 勢力과의 妥協은 그 支配에 屈從함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며 또 資本閥의 表面的 勝利는 決코 農工階級이 革命의 指導勢力됨을 否定하는 材料가 되지 아니 합니다.

△北伐完成으로 軍政期를 經過한 革命中國은 이제 訓政期에 들어서 憲政期를 準備한다합니다. 訓民綱領과 五院 組織法이 發布되자 國民政府는 새로운 陣容을 가추어 青天白日旗아래 中國을 統治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雙十節은 實로 國民政府가 正式으로 成立한 歷史的 記念日이었습니다. 建設期에 들어선 今後의 中國에 있어서 안으로 階級勢力의 推移는 엇더할 것이며 밖으로 列強勢力으로부터의 解放的 努力은 또 엇더할 것인가? 오늘날의 外交的 中心은 南京으로 모히어있는 이만치 革命中國은 全世界의 注目的 焦點이 되어 있다.

△革命中國의 眞相을 調査하여 讀者 여러분에게 紹介할 計劃을 세운 本社에서는 나에게 特派를 命한지 오래였스나 나의 個人事情의 相値로 이제야 써나게 된 것입니다. 本來 中國에 對한 智識이 充分치 못한 나로서는 여러분 期待에 맞도록 紹介하여 들일는지 斯사로 慊然한 寤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往年 내가 歐洲에 遊學하든 當時에 現在 新中國의 中堅人物인 王正廷, 蔡元培, 李石會 等 諸氏와 親分이 잇섯슴으로 여러 가지 便宜가 잇슬 줄 압니다. 먼저 革命中國에 對한 鄙見의 一端을 말씀하고 이만 긋칩니다. (十八日 車 中에서)

(寫眞은 李灌鎔 博士)